

解放과 宣敎七十周年

總 會 長 金 德 成



우리가 잊을수없는 八·一五해방 기념의 날을 또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三十六년간 나라없는 서늘과 암흑과 치욕의 고통, 재산과 생명과 성령까지 파괴되어 존재의 가치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구태여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잊을수없는 八·一五해방 기념의 날을 또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三十六년간 나라없는 서늘과 암흑과 치욕의 고통, 재산과 생명과 성령까지 파괴되어 존재의 가치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보면 구태여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주어진 해방」을 우리에게도 「주어진 해방」으로 주셨다. 「주어진 것」으로 생장되었다.

그러므로 八·一五해방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을 받지 말라(갈5:1)고 설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의 해방이 참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일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나라가 예로 아담을 11년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36년간의 약탈과 노예생활을 받다가 구원받은 것이다. 바벨론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스며들었다. 그 후 197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해방 3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약하고 해방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 앞에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의 「주어진 해방」을 우리에게도 「주어진 해방」으로 주셨다. 「주어진 것」으로 생장되었다.

그러므로 八·一五해방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권으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을 받지 말라(갈5:1)고 설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우리의 해방이 참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일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유대나라가 예로 아담을 11년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36년간의 약탈과 노예생활을 받다가 구원받은 것이다. 바벨론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스며들었다. 그 후 1978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해방 3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약하고 해방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 앞에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신교七十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우리 민족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한다.

敎役者・長老研修會

敎役者・長老聯合研修會가 지난 7월 18(土) 20日, 北陸片山温泉에서 가졌다. 우리의 회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 아래 約六十餘名이 參加하여 宣敎七十周年을 맞이하는 해의 研修會를 뜻깊게 보냈다.

宣敎七十周年의 標語를 주제로 모인 敎役者・長老聯合研修會는 例年과 달리 總會內 敎役者가 모든 順序를 担当하였다.

從前에는 이틀있는 講師를 招請하여 一方으로 듣는 形式의 모임이었으나 今年에는 서로가 배우는 자세로 發題가 있었고 좀더 우리의 가까운 問題들로서 모든 點을 다룰 수 있었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이와 五十三章을 金安弘牧師(大阪敎會)와 李大京牧師(西新井敎會)가 担当하였고 베드로前書全章을 金元治牧師(西成敎會)와 尹宗銀牧師(堀江敎會)가 각각 担当하였다.

中部地方夏期學校

中部地方會教育部(部長 李海春牧師)主催による敎會學校小中學生夏期學校が、去る7月24(土) 26日(二泊三日)愛知県

青少年公園で、67名(岡崎30名古庄34名・岐阜2名)が参加して開かれた。

「われわれの希望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主題のもとで、楽しい聖書の勉強と、大自然の中の水泳、サイクリング、フォークダンス、ゲーム等のプログラムは、朝6時半より夜10時まで、礼拝・規律・協同・親睦等の楽しい生活を体得し、彼らの将来の生活に大きな教訓と意義をもつ、楽しい夏期學校をもつことができた。

「われわれの希望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という主題のもとで、楽しい聖書の勉強と、大自然の中の水泳、サイクリング、フォークダンス、ゲーム等のプログラムは、朝6時半より夜10時まで、礼拝・規律・協同・親睦等の楽しい生活を体得し、彼らの将来の生活に大きな教訓と意義をもつ、楽しい夏期學校をもつことができた。

總會各機關夏期修養會閉幕



敎役者・長老研修會參加者



敎役者・長老研修會에서의 聖經工夫風景



中部地方夏期學校の參加者たち

八月号休刊

本報 8月15日号は事情により休刊いたします。

福音新聞社

宣 教 7 0 周 年 記 念

1979年春期聖地イスラエルとヨーロッパの旅

★聖地イスラエル

エルサレム・エリコ・シケム・テベリア・カペナウム
カナ・ナザレ・テルアビブ・シナイ山

★ヨーロッパ

ローマ・パリ・ロンドン・アテネ

主催：福音新聞社

協力：(株)日本交通公社海外旅行虎の門支店

- 旅行期間 1979年3月14日(水)～3月30日(金)(17日間)
- 募集人員 約30名(定員になり次第締切ります)
- 旅行費用 558,000円
- 申込方法 申込金6万円を添えて、福音新聞社まで申込んで下さい。

- 申込締切日 10月末日
- 問い合わせ先 金君植牧師・姜栄一牧師



全協修養会参加メンバー



関西婦人会修養会

全協修養会盛況

去る8月14日、18日、マリンブルーに輝く伊勢二見ヶ浦で第26回夏季全国修養会がもたれました。参加者は80数名と昨年と変わらぬ規模でしたが、これからの教会、教会青年運動のあり方、信仰のあり方など多岐に渡って真剣な話し合いがなされました。

今年は特に3つの発題があり、まず始めに代表委員の金性済氏から「主題・副題に対する見解」があり、在日韓国人の疎外された生の指摘がなされた後、その疎外された生からのキリストによる転換の場とどのように関わっていくかが、今後の新しい教会像と、それを支える信仰のあり方を模索する際の大きな課題であるとの方向を示しました。教会が代代的な交代期を迎えるなかで、青年(2・3世)が教会形成の主体となる見解が、在日同胞社会の中の「地場の場」としての役割を果さねばならないと力強く語り、そのために今一度私達の教会が地域同胞社会の中でどのような位置を占めているのかという点検と在日同胞社会への関りの模索が必

要であると指摘しました。また崔京植牧師が「70年の総会史をふまえた今日の総会の現状と課題」という題目で、朝鮮教会の曹基永先生から「在日同胞の解放をめざして」という題目でそれぞれ講演されました。「10年前と比べて3分の1に教会青年が減少している危機的状況」をふまえて、今後青年が教会の主体となるべきである。「民族的主体性が崩壊していく状況の中で同胞の解放をめざすには、民族性の確立が急務である」と云々という意見をのべられ、青年を励ましてくれました。

また昨年と違って今年は聖研ももたれ、数多くの講師を囲んで、私達が直面している困難な状況からいかに聖書を読み、キリストを証ししていくかが熱をもった語りだったことは今後の教会青年運動の原動力となるでしょう。そしてまた、ひとつの試みとして、川崎での川崎信用金庫の融資差別に対する闘いが、スライドを通して紹介されたり、各教会での実践(「サレム」学校、地域活動、主日学校、伝道キャンプ(パン隊)の記録写真が壁に貼られるなどの視覚を通じた報告がなされました。目と耳を通じて

終わった修養会では、ついに残念だったことは、EYC(韓国基督教青年協議会)の青年が修養会に参加できなかったことでした。今後の彼らの健康を祈り、来年はぜひ本国の青年を迎えたいと思います。来年はより多くの青年の参加を期待します。

関西婦人会修養会

関西地方婦人会修養会が七月二十六、二十七日、有馬温泉で会員約七十名が参加して行われた。

聖霊によって一つなる私たちの希望を主題に、金元治牧師(関西地方婦人会局長)・李仁夏牧師(宣教七十周年実行委員長)の講演がそれぞれあった。

関西地方婦人会は、昨年修養会を持たなかったため、今年は是非開いてほしいとの婦人たちの要望によって開催された。しかし、実際に参加したのは六十以上の会員がほとんどで、若い世代の参加が得られなかった。年輩の会員の参加も歓迎するが若い世代がもっと参加できるように修養会を関西地方婦人会では考えている。

倉庫を礼拝堂に改造

新居浜でワークキャンプ

関西青連

関西地方青年部、青年会は新居浜伝道所(許達秀牧師、昨年秋本国から赴任)の開拓伝道支援のために、去る八月二日から六日までワークキャンプを行った。このワークキャンプに

は関西から崔忠植青年部長を始め、青年六人(京都南部教会・権徳秀、金性済、徐泳太、朴仲子、大阪教会・金明元、豊美子)が参加した。

このワークキャンプは初めての試みであったので不安がつつしたが、許達秀牧師や青年部、地方会および婦人会の祈りに支えられていることを覚え、八月二日の早朝七時から仕事にかかった。

宣教七十周年記念事業の一つとして、約三百坪の土地が五月に購入された。古小屋、古い住宅、それに倉庫が雑然と建っている。礼拝堂がどうしても必要なこと、子供の広場があればいいと良いというところから倉庫を整理し礼拝堂に改築することに決めた。

古鉄、石ころ、古木など、更に一cm以上もつった天井の塵を黒い汗を流しながら大掃除をし、プリント合板等諸種の建材の購入から始め、作業に入った。教会員は心配そうに見てお

れたが、専門の木工のように、てきぱちやっていたの姿と出来上がりを見てすっかり安心、八月五日の夜九時、ようやく礼拝堂が完成、十字架を作り、青年と許達秀牧師の手で正面にかけられた時、みんなが「サレム、サレム」と歓声を上げて喜んだ。

解体建築業者に行き、子供たちも自由に飛び跳ねることが出来るように、タタミ一枚五百円で二十四枚買ひ、礼拝堂に敷いた。

八月六日の日曜日、その倉庫を、礼拝堂で、こちらで持つて行ったスライド、紙芝居、歌、ゲームなどをして楽しい子供会を開き、十一時から喜びの中に礼拝が行なわれ、権君が証しをするのが出来た。

八月四日の愛媛新聞に労働奉仕のことが大きく取り上げられ、大きな反響をおよぼしたのは、四国に始めて在日韓国教会が大

(報告 崔忠植牧師)



青年の手で十字架を取りつける 新居浜伝道所

きく内外に知られたことから、しても意義があった。

ある日本人がこの新聞をみて、自分で費用を出し、大工を雇い、後の仕立をした、との申し出があった。ほだされた。

青年は本心に献身的に良く働いた。それぞれ忙しなかから信仰の体験を肌で得ようとする熱意であった。素直にイエスの十字架は苦悩であり希望であることを体験しようとする信仰の証しであったといえる。

特に在日大韓居留民団新居浜支部会館で、私たち一行が自炊や宿泊が出来たことは本当に感謝した。また、私たちの働きのために、心からの支援をして下さった許達秀牧師、関西地方会婦人会、それに京都南部、大阪両教会にも合わせて感謝したい。青年の今後の働きにとっても大きな励みになった。

(報告 崔忠植牧師)

全国教師の交流の集い

教会学校教師の研究と交流の集いが八月十七日、十九日、伊勢二見ヶ浦の海洋楼で教師多数が参加して開催された。

八月ともなれば教役者・長老研修会、全国青年修養会等、修養会のシーズンたけなわである。そして個教会においては夏期学校でそれぞれのプログラムをもち、教師にとっては一番忙しく、かつ楽しい時でもある。

のみならず教材の用意などで苦しい思いをする時でもある。しかしこのように教会学校の現場で苦勞している教師同士の横のつながりは弱く、個教会中心にカリキュラムを作成して教会学校を支えてきた。

この夏集いの集いが召集された。

韓国歴史の旅

関西Y

去る8月21日より28日まで、関西YMCA主催の韓国訪問が開催された。在日韓国人10名、日本人10名、計20名(途中東京韓国YMCAスタッフ2名が合流)による今回の韓国訪問は、若さ満ちあふれる雰囲気の中で、21日釜山に向って出発した。

初日の夜は、韓日両青年達が海雲台海水浴場の浜辺で語り合いうちで、相互理解を深める一時となった。

翌日、韓国の古都慶州を訪れ、新羅の歴史、文化を肌で触れながら、まるで絵に描いた様な古都のおだやかな晩夏の風景を満喫した。

三日目の俗離山の法住寺においても同じく、新羅統一時代の仏教文化を見学した。

こうして一行は、専用バスに揺られ首都ソウルに向った。

景福宮、博物館、市場見学等は、李朝時代にまでさかのぼる歴史の旅であると同時に、現代韓国社会の見学でもあった。特に北緯の街・山が一望できる38度線の第一線視察は、南北の平和統一の必要性を全員に強く訴えかけるものであった。

今後、韓国旅行は、今回の実績を基盤に継続させる予定であり、また、このような旅行を通して、在日同胞の指導者養成と韓日両国間の正しい相互理解のため、寄与したいと願っている。最後に、神の導きと皆さんの祈りに支えられ、無事終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感謝する次第である。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中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中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宇太田
電話 052(771)5952

食品・薬品包装業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代)

永松永製菓株式会社

本社 愛知県小牧市大字西之島330
電話(0568)72-1211~5
営業所 名古屋市西区児玉町1-6
電話(052)531-1180

金融々資、参政権等

福田首相に公開質問

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権獲得闘争連合会。福田日本国首相에게 五項目の公開質問書を、九月一日提出하였다。九月一日은 一九三三年、關東大震災로 인하여、在日韓国人이 大量虐殺당한 날로써、在日韓国人의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할것을 促求하는 이 運動이 더욱이 이 날을 때 하여 激化한것이다。

公開質問書에는 教役者十四名을 비롯하여 大学教授、医

在日韓国人・朝鮮人の人権獲得闘争連合会。福田日本国首相에게 五項目の公開質問書を、九月一日提出하였다。九月一日은 一九三三年、關東大震災로 인하여、在日韓国人이 大量虐殺당한 날로써、在日韓国人의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할것을 促求하는 이 運動이 더욱이 이 날을 때 하여 激化한것이다。

公開質問書에는 教役者十四名을 비롯하여 大学教授、医

大阪教会起工式

8百坪에 3億5千万円들어



大阪教会完成予想図

大阪教会(金徳成牧師)と保育園建築起工式이 八月一日、大阪教会、関西地方会 그리고 関係者 多数가 参加한 가운데 엄숙히 挙行되었다。

金徳成牧師의 司式으로 찬송가 三三九장을 부른후 KCC主任幹事 박진두牧師의 기도、金安弘牧師의 聖經朗誦(歴代上28장10、20、마태18장1절)、金徳成牧師의 式辭、總會副會長 尹宗銀牧師의 致辭、関西地方會長 洪永其牧師의 激勵辭등에 이어 楊炳泰牧師의 기도가 있은후 起工式을 하였다。

起工式에는 大阪教会堂會員一同、坂本設計事務所代表、栗本建設工業株式會社本部長、大阪市庁民生局保育部代表、生野社会福祉事務所代表이 참가하였다。

祝辭는 伝道局長 金元治牧師、KCC理事長 俞錫濤長老、大阪私立保育園連盟副會長 益谷寿牧師、大阪YMCA前總主事 世戸一夫氏등이 하였으며 李宗憲牧師의 祝禮로 着工式 礼拝을 마쳤다。

大阪教会는 解放後부터 礼拝堂建築을 위하여 간절히 願하여오는데 一九五四年에 建築委員會를 組織하고 數次에 걸쳐 建築献金을 하는등 準備하였다。

大阪教会는 우리同胞가 生野区 東成區 天王寺區 城東區 約十萬名이 密集하여 居

靖国拒絶

姜牧師証言

八月五日(土) 東京日清會에서 「아세아의証言」-靖国에의 拒絶-이란 集會가 있었다. 이集會는 日本이 또다시 軍國主義化되어가는 傾向이 甚어져가는것을 우려, 과거에 軍國主義의 影響이되었던 靖国神社參拝을 拒絶하는 뜻에서 모인것이다。

日本이 敗戦한 十五日에는 朝鮮人の 基本的인 人權의 保障について 深い 関心가 있다고 믿는다。

私達は今日まで在日韓国人・朝鮮人の 基本的인 人權が何ら認められていない現實をふまえ、次のような質問書を提出致します。

一、在日韓国人・朝鮮人が日本に住むに至った歴史的経緯を考慮する時、日本人の責任、特に日本政府の責任において、在日韓国人・朝鮮人の 基本的인 人權の保障に対する 基本的인 見解を明らかにして下さい。

二、東京都、横浜市などの都市では在日韓国人・朝鮮人に児童手当が支給されていますが、政府は何時ごろから実施いたしますか。

三、東京都、横浜市及び多くの都市で在日韓国人・朝鮮人の公営住宅の入居資格が認められておりますが、政府は何時頃から地方自治体において完全実施されるよう行政指導致しますか。

四、国民金融公庫からの融資が、在日韓国人・朝鮮人に適用されるよう政府が何時頃、行政指導致しますか。

五、私達は 基本的인 人權の最大の保障の道は参政権に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それ故に在日韓国人・朝鮮人に参政権を認めるべきと考えます。特に国会議員の選挙権・被選挙権は認められるべきと考えますが、この点についての 基本的인 見解を何時頃認めますか。

岡山教会

林執事火災

岡山教会 朴憲郁(執事)의 林春發執事家屋이 지난七月十四日(金)새벽에 火災로 全焼되었다. 岡山教会는 消息을 들은 많은教會와 教友들이 따뜻한 손길을 펴고 있다. 지난七月에 모인 敎役者・長老研修會에서도 林執事의 가족을 위하여 祈禱하고 即席에서 献金하여 朴憲郁執事를 通하여 慰問金을 伝達하였다.

火災는 十四日아침七時頃에 林春發執事夫人인 禹連伊執事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하여

張曉先生 歿

환으로 逝去



張曉先生(本名張孟植)이 歿한으로 지난八月十九日召天하였다. 享年58才。

張曉先生은 本紙創刊時부터 關与, 여러 恩事情에 滿여 있었음에도 平素 本紙發展에 크게 寄与하였다。

張曉先生은 누구보다도 民族教育에 情熱을 쏟아왔다. 一九四五年 福岡朝鮮學校敎師로부터 京都韓國學園、東京韓國學園에서 오랫동안 敎鞭을 잡았다가 韓國語普及에도 헌 힘을 다하였다. 지금과같이 僑胞社會뿐만 아니라 日本人들도 韓國語에 대한 関心이 있었음에 韓國語敎育材料을 만들었으며 在日韓国人의 靑少年을 위하여 만들어진 國語入門은 韓國語入門으로서 높은 評價를 받고있다. 旅行者를 위한 韓國旅行會話集등도 韓國을 旅行하는데 必要한 것으로 많은사람에게 愛用되고있다. 또 靑少年들을 위한 우리나라 歷史敎育(韓民族とその歩み)란 책도 내고 民族教育에 큰 道을 내었다. 其間 民族教育에 貢獻이커 韓國의 文敎部長官으로부터 感謝狀을 받은바 있다. 遺家族으로 夫人 金光子執事와 二男一女가 있다。

京浜商工協同組合

認可 神奈川県知事 (一九七八年二月)

理事長	金哲
副理事長	金容
理事	崔鍾
理事	高大
理事	金錫
理事	金炳
理事	金永
理事	金鴻
理事	金榮
理事	金君
理事	金植
理事	金欽
理事	金元
理事	金俊
理事	金燾
理事	金基
理事	金淳

公 告

東京都調布市多摩川二丁目十七ー一 宗教法人 在日大韓基督教調布教会 當教會信徒及び利害関係者各位 當教會規則第二十七條に従つて以下の事項を公示する。

これにつき、異議のある方は一九七八年十月五日までに申し出て下さい。日限までに申し出ない時は実行に移します。

記

一、境内建物新築廣告

A 建物名称 在日大韓基督教調布教会

B 新築建物 礼拝堂及び牧師館

C 建物容積 一七六・九七八㎡

二、担保に供する件

A 不動産表示

東京都調布市多摩川二丁目十七ー一、十四、十五、十六。

礼拝堂及び牧師館を新築するに伴い、建築資金借入の爲に上記の土地を担保物件として提供することを承認する。

以上、宗教法人法第12条第13項第2号により公示いたします。

一九七八年九月一日

代表役員 姜 榮 一

三菱電機ストア

ヨブヤ電気武庫之莊店

代表者 李 清 孝

尼崎市南武庫ノ莊一丁目6-13
電話 06-4336-8622
(スーパーマイショップ前)

宝塚店
宝塚市川面五丁目12-10
電話 0797-860305
(スーパーダイエー前)

高級婦人服製造卸

OK 商 会

金 京 秋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 281号
電話 大阪(06) 251-5444 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話 大阪(06) 981-2980 番
電話 大阪(06) 974-7715 番

戸籍問題相談

人 事 調 査

梁 健 默

大阪 浪速局 私書函23
電話 0722(61) 1483

◎戸籍問題は 現行 臨時特例法
으로 处理못하는 難件 相談